

SENIOR 조선

멋지게 나이 드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DECEMBER
2012
VOL.08



Theme of the Month
걷기 위해 떠나라

“이것은
조그마한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악가 조수미씨가
K9의 정숙성에
감탄한 순간의
표정”

표정이 진실을 말한다



세상의 기대, 모두의 찬사로 증명된다

초고속주행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놀라운 정숙성! **동아일보**
럭셔리 세단답게 편안하지만 차체는 유럽스타일로 탄탄하게 세팅된 기분! **매일경제**
속도계를 보지 않는다면 속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숙하다! **서울신문**

TO THE GREATEST **K9**



3.8 GDI 프레지던트

명차의 약속, K9 Only-1 프로그램

K9 헤드업디스플레이(HUD) 패키지 무상장착

- 본 프로그램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차량내용은 충분하지 않거나 차량·내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내용 : 헤드업디스플레이 패키지 (23만원) 무상장착 또는 특급 호텔 패키지 이용권 중 택 1

K9 고객 사은 프로그램

- 대상 : 11월 K9 출고 고객 (개별판매처 정착현 체재)
- 내용 : K9 로마로 최고급 골프백 또는 특급 호텔 패키지 이용권 중 택 1

K9 개런티 프로그램

- 대상 : 11월 K9 출고/등록 고객 (엔트리, 리스, 면세차량, 개별회사 일자현 체재)
- 내용 : 출고일로부터 30일 내 품질 불만 시 차량 교환 (주행거리 500~1,500km 기준)

www.kia.co.kr 고객센터 및 고객봉사관
구입문의 1588-1100 | 080-200-2000

청탁금지법준비 및 등급 ▶

K9 3.0 GDI 차종 연비 : 통합 연비 9.8km/ℓ 도심 연비 8.4km/ℓ 고속도로 연비 11.7km/ℓ 구조연 면밀 10.7km/ℓ 배기량 3.360cc | 공세정 1,030kg | 통합 CO₂ 배출량 184kg/km ~ 464kg/km
K9 3.0 GDI 차종 연비 : 통합 연비 9.8km/ℓ 도심 연비 8.4km/ℓ 고속도로 연비 11.7km/ℓ 구조연 면밀 10.7km/ℓ 배기량 3.378cc | 공세정 1,030kg | 통합 CO₂ 배출량 184kg/km ~ 464kg/km
※ 병합 면밀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차체 하드웨어로 인해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차량 성능은 차량 제작자와 차체 제작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연 면밀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차체 하드웨어로 인해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차량 성능은 차량 제작자와 차체 제작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KIA의 신개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Smart Q Service

인터넷 예약 QCar.co.kr

inside

VOL.08 DECEMBER 2012 〈시니어조선〉은 멋지게 나이 드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12



COVER

기아자동차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 K9은 기능과 디자인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자동차다. 차단 기능에 남성적 디자인을 기여해 자동차의 완성도를 높인 것. 아노디자인 화장이자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김영세는 K9을 “내려고 외관이 일관성이 있다. 진취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실내 디자인은 차량 외부로 이어진다. 그 정면을 바라보면 당당한 남성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평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초 인천 송도의 ‘트라이벌’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영세 화장과 K9. 사진 김민관(아트엔카미스)

06

GALLERY 서울의 기억

서울은 어떤 기억이 담긴 공간일까? 1950~60년대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 사진가 김한용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08

TREKKING 걷기 위해 떠나다

세계적으로 도보여행을 이끄는 주역이 바로 시니어다. 중장년의 그들이 자연만의 호흡대로 천천히 산길들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12

PEOPLE 꿈꾸는 네 남자, 형제가 되다

이들을 주목하라. ‘더 하베스트’라는 새로운 공간 안에서 의기투합, 형제라는 이름으로 웃고 우는 네 남자 이야기.

14

MEMORIES ‘제비다방’에서 모던보이 이상을 추억하다

여러 편의 작품에서 다행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을 그린 이상. 그가 직접 운영한 제비다방과 당시의 낭만을 충쳐본다.

15

DINING 소중한 이를 위한 12월의 만찬

센스 있는 남편들만 있는 특별한 레스토랑 4곳. 이것에서라면 낮간지려운 이벤트 없이도 아내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다.

16

THANKS To 그분에게 드리고픈 선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늘 그렇듯 올해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빛졌다. 각계 명사들이 그 누군가에게 전한 감사의 인사.

18

Bow Tie 고이 메어 나빌레라

남자가 최고로 멋진 순간, 바로 그때를 위해 존재하는 아이템 보타이. 올 연말은 보타이로 매력을 발산해보는 건 어떨까?

19

MUST-KNOW 당신의 면도는 안녕하십니까?

시춘기 이후 거의 매일같이 해온 면도. 그 면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어쩌면 아직까지 모를 수도 있는 7가지 면도 상식.

20

THIS CAR K9, 그리고 디자이너 김영세

기아자동차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 K9. 자동차에서도 일기간이 있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김영세가 바라본 K9의 매력.

22

HEALTH 아직도 위암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가장 잘 걸리는 암. 서울아산병원 위장암외과 김병식 교수의 위암에 대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23

FINANCE 집 크기 줄이지 마세요

다수의 시니어들이 자신의 교육이나 결혼에 신경 쓰느라 세대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게 현실. 주택마저 없다면 자금 확보는 더 어렵다.

24

COMMUNITY 어려운 이웃, 돋는 계릴라·봉사단

시니어 봉사클럽 ‘개릴라 봉사단’, 봉사는 남이 아닌 자신을 돋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이들을 만나보자.

26

INFOPACK 눈에 띠는 12월 아이템

제니스포츠의 스키 재킷과 벨루티의 지갑, 피아제와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들…, 올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몇 가지 아이템.

27

CULTURE 이달의 문화

일천 연말을 위한 문화소식. 반 고현 전시, 유덕화의 새 영화, 오페라의 유령 내한 공연, 그리고 중년 남성에게 필요한 책까지 한가득.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팀장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t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박철진 sookook49@naver.com
남미영 willena@chosun.com
PHOTOGRAPHY C.영상미디어
DESIGNER 별디자인
ART DIRECTOR 김경애 aeziwon@naver.com
GRAPHIC DESIGN 최귀열 aroma1510@naver.com

ADVERTISING
부장 박정훈 jpjh@chosun.com
차장 양훈식 huns@chosun.com

MARKETING
팀장 정하나 hana@chosun.com
대리 총은애 bhong@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ff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66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티타니피에스
출판 일진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강동, 동부아울렛,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자일동,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저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휴가를 꿈꾼다면
클럽메드로 떠나세요



휴가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클럽메드

[지정일 특가] 발리, 푸켓, 빈탄, 말레이시아 체리팅 - 성인 129만원 부터

지정 출발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12월 ~ 2월 출발 한정 판매 상품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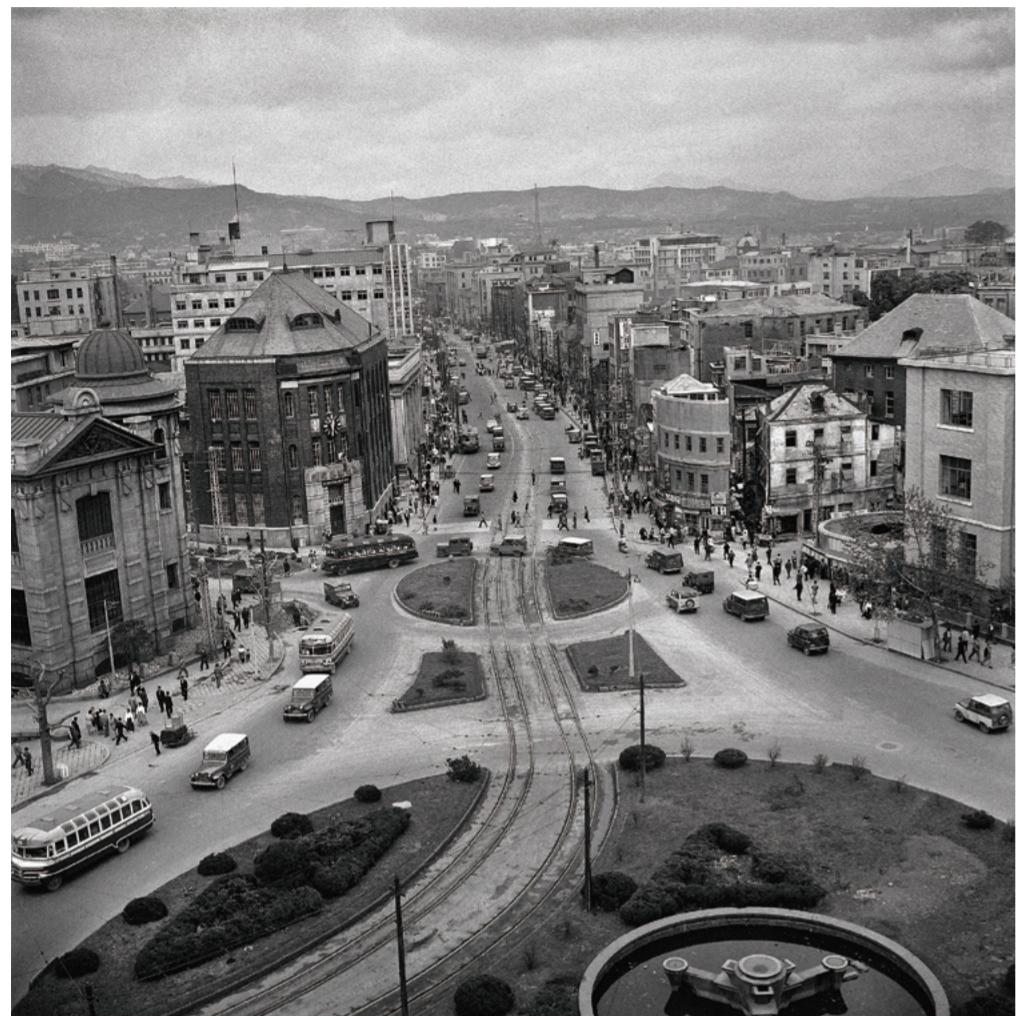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02-3452-0123
www.clubmed.co.kr

Club MedΨ
WHERE HAPPINESS MEANS THE WORLD

GALLERY



1950s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 앞 로터리

옛 동화백화점 옥상,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다. 좌측에는 한국은행과 상업은행이, 우측에는 우체국이 있었다. 중앙의 도로와 로터리가 잘 보이는 위치를 찾아 촬영했다. 지금은 이 로터리에 큰 분수대와 조각작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1950년대 서울 시가지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사진이다.



1950s 덕수궁스케이트장

대한문에서 덕수궁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자그마한 언덕이 있었다. 거울이 되면 이 언덕에 얼음이 얼어 출렁한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거울을 만끽했다. 요즘은 거울이 되면 서울 시청 광장에 현대식 시설을 완비한 스케이트장이 들어선다. 참으로 불편함이 없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에 보이는 건물은 옛 서울시청이다.



김한용 사진가는 1924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1946년 월남, 1947년 국제보도연맹에 사진기자로 입사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종군해 서북전선을 취재하기도 했으며 전쟁 후에는 부산에서 사진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1960~70년대 광고와 영화 스타일을 활용하여 상업 사진계에 짙직한 족적을 남겼다.

김한용 사진가는

태어나 1946년 월남, 1947년 국제보도연맹에 사진기자로 입사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종군해 서북전선을 취재하기도 했으며 전쟁 후에는 부산에서 사진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1960~70년대 광고와 영화 스타일을 활용하여 상업 사진계에 짙직한 족적을 남겼다.



1950s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 앞 로터리

전차, 버스, 자동차 등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교통순경이 문주해 보인다. 강한 저녁 햇빛에 그림자가 눈에 띠어 촬영을 했다. 당시에 항상 카메라를 메고 다니며 언제든지 촬영할 거리가 눈에 띠면 사진을 찍곤 했었다.

서울의 기억

우리에게 서울은 어떤 기억이 담긴 공간일까.

2012 서울사진축제 출품작 가운데,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 사진가 김한용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사진에 관한 각각의 설명은 이번 서울사진축제를 위해 김한용 작가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사진에 관한 각각의 설명은 이번 서울사진축제를 위해

김한용 작가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1960s 종로 아카데미극장

이 시기의 구경거리는 TV보다는 영화였다. TV가 집집마다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0, 60년대의 휴일에는 영화를 보러 나가는 것이 흔한 모습이었다. 나 역시 그 시절 영화를 보러 다닌던 추억이 남아 있다. 종로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영화를 보러 들어가기 전에 촬영한 사진이다.

2012 서울사진축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사진축제는 '마을 공동체와 사진 아카이브'를 내용으로 사진의 사회적 기능과 실천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주제로, 전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을 주제로, 전문 사진가들을 비롯한 시민과 전국의 네트워크들이 출강하고 수집한 사진들이 대거 접결해 한층 풍성한 불가리들을 선보인다. 잊혀진 서울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2월 3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과 서울시청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사진축제 기간에 맞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사진인문학 강좌도 눈여겨볼 만하다. 인문사회학자와 사진이론가, 예술평론가의 강연으로 구성되며 기억을 구축하는 이미지로서 사진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다. 전시와 강좌는 모두 무료다. 문의 070-8240-9902

OD Musical Company, CJ E&M present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최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단 5주간의 특별공연

★★★★★
최고가 최고를 만나다!
대한민국 예술의 메카 예술의 전당이 2013년 개관 25주년을 기념해 선택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최고의 극장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단 5주!

한국 뮤지컬 불멸의 신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예매처 서바다운, 전회매진/전회기립 박수, 90% 이상의 유료 객석 점유율 등
공연 때마다 한국 뮤지컬 공연 기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2013년 다시 한국 뮤지컬의 기록을 다시 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1997년 브로드웨이 초연된 이후 2012년 다시 리바이벌 되었고,
독일, 일본, 영국, 벨기에, 덴마크, 러시아, 스웨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004년 한국 초연 이후, 최고의 배우들에게만
허락한 단 하나의 무대가 2013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펼쳐진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13년 1월 8일~2월 9일

기획/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 협원 LOUN.G 후원 K160 기술보증기금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예술의전당 (02)580-1300 예매처 오픈리뷰 인터파크 옥션 yes24

Conceived by for the stage by Steve Cuden & Frank Wildhorn | Book and Lyrics by Leslie Bricusse | Music by Frank Wildhorn | Orchestration by Kim Scharnbeg
Arrangement by Jason Howland | Directed by David Swan

TREKKING



걷기 위해 떠나라

시간을 소비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살아왔다'는 감격보다 '살아냈다'는 씁쓸함이 느껴지는 기분을 떨치고 인생의 후반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다. 여태껏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면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지금부터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야하지 않겠는가. 지금이 바로 당신이 떠나 볼 차례이다.

분주한 일상의 삶을 잠시 벗어나 길을 걷는 데 몰두하다보면 자기 안에서 변화를 위한 공간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떠나라 그리고 내면의 외침에 귀기울여 보라.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아침에는 위대했던 것들이 오후에는 보잘것없어지고, 아침에 진리였던 것이 오후에는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심리학자 칼 용은 말했다. 10대나 20대 때 세운 계획이나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이 그 사이에 바뀌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고, 세상이 가만히 멈추어 서서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인생의 오전과 오후를 가르는 시기인 40대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때이다. 인생을 살면서 혁명이 필요한 시기이자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아왔으니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축구에서도 전반전과 후반전의 전략이 달라야 이길 수 있듯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전반전은 총력전이었다면 후반전은 유연한 사고의 기술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반기와 후반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에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스스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감지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기억하라. 인생은 무조건 빨리 가야 하는 경주가 아니며, 무조건 수익을 남겨야 하는 비즈니스도 아니다. 인생은 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만나야 한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한다. 복잡한 세상과 작별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이 순간을 즐기거나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고, 속도를 늦추고 한 템포 느리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감미로운 공상들이 나의 동행이 되어주고 있었다. 내 뜨거운 상상력이 내게 이처럼 멋진 공상들을 안겨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생각



가도 가도 아무도 없으니
이 길은 무인(無人)의 길이다.
그래서 나 혼자 걸어간다.

꽃도 피어 있으나,
친구인 양이 웃인 양 있으나,
참으로 아름다운 꽃의 생태여.

길은 막무가내로 자꾸만 간다.
쉬어 가고 싶으나
쉴 데도 별로 없구나.

을 해본 적이 없었으며 이렇게 뻣듯하게 존재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때 혼자 걸어가면서 했던 생각들과 존재들 속에서 만큼 나 자신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며 장 자크 루소는 걷기에 대해 예찬했다. 사람들은 때때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걷기는 사물들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새로이 일깨워주는 인식의 한 방식이며 세상의 제 맛을 찾아 즐기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걷기 여행을 떠날 때에는 일정이 너무 족박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다. 최단 시간 내에 주파하고자 서둘러 필요도 없으며 자신에게 알맞은 속도로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보행자에게 왜 고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는 자유인이다. 그야말로 기회와 가능성의 인간이요 흘러가는 시간의 예술, 길을 따라가며 수많은 발견을 축적하는 변화무쌍한 상황의 나그네다. 이러한 걷는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혼자여야 한다. 순례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익숙한 것에서 한동안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이다. 걷기 여행을 통해 삶의 속도를 늦추어 자기 성찰이라는 내면의 연금술을 부려보는 것은 어떨까.



하염없이 가니
차차 배가 고파온다.
그래서 음식을 찾지마는
가도 가도 무인지경이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참 가다가 보니
마을이 아득하게 보여온다.
아슴하게 보여진다.

나는 더없는 기쁨으로
걸음을 빨리빨리 걷는다.
이 길을 가는 행복함이여.

떠나기 전 자문하라

- ◆ 내 인생의 최우선 목적은 무엇인가?
- ◆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 ◆ 바쁜 일상을 잠시 쉬어 가고 싶다는 소망을 언제 처음 깨달았는가?
- ◆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콘텐트 크리에이터 정진홍 내려놓아야 들어올릴 수 있다

인문학적 깊이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대한민국 리더들을 감동시키는 정진홍. 일간지 논설위원, 여러 권의 인문학 서적을 쓴 저자, TV 방송 진행자로 삶을 종횡무진 누비던 그가 어느 날 일상에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지난 4월, 배낭을 꾸려 산티아고로 향했다. 47일간의 도보 여행을 통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10년 전이었다. “직(職)으로 삶을 마감할래 아니면 업(業)으로 삶을 다시 살래?”라고 자문한 뒤 안정적인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콘텐트 크리에이터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은, 그리고 10년 후 어느 날, 그의 마음 속에서 또 다시 본성이 그를 일깨웠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만 성공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삶이었지만, 정신과 마음에 비개가 긴 채 안락한 소파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기분을 털어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산티아고 도보 순례길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스크린에 ‘현재 항속 900km/h’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나는 왜 한 달 넘게 걸어가려는 걸까. 내가 산티아고 가는 길 900km를 걸은 것은 다름 아닌 ‘마음’ 견진이었다. 사람들은 나이다가 수수께끼를 풀거나,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도 마음 검진을 받을 생각은 안한다. 앞으로의 10년, 그 이상의 미래를 나아가려면 당시 나에겐 마음 견진이 필요였다.”

떠나기 전 우리나라에도 좋은 길이 많은데 굳이 해외로 가야 하느냐, 산티아고는 이미 많은 사람이 다녀온데 왜 하필 그곳이나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그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에서 자신을 오롯이 마주하고 싶었다. 어차하면 집으로 쉽게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길을 걷다보면 자기 인생을 미흡할 수밖에 없고, 걸으면서 그동안은 피해왔던 일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 걷고, 먹고, 자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 자체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산티아고 한 번 걸었다고 사람이 바뀌겠나. 물론 그렇지 않다. 산티아고 길을 걷는다는 건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길개는 1년 전, 아니면 몇 개월 전부터 체력을 단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육체적으로 준비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무작정 걷기 전에 삶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 살아온 게 달랐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어도 알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길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산티아고에 가는 동안 고독과 극한으로 스스로를 내몰았다. 새벽에 숙소를 나서서 길을 걷다가 오후에 숙소에 가서 쉬고, 다음날 새벽 다시 길을 나서는 정형화된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방향을 안내하는 노란 화살표만 믿고 헤드램프로 앞길을 비추며 이간 산행을

감행했고, 눈보라치는 피레네 산에서 추위에 떨며 동트는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는 의도하거나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산티아고로 간다’는 것 외에는 바가 없었기에 그때그때 마음이 내키는 대로 떠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의 감동은 배가 되었다.

“페르든 고개에서 동이 트는 것을 기다릴 때에는 마치 땅속으로 끼쳐버릴 듯 추웠다. 온 몸이 얼어붙고 땃속까지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에 떨며 ‘이 밤에 내가 미쳤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그곳에서 점점 날이 밝아지는 새벽을 맞는 순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자기를 가장 옥죄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나 역시 그랬다.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 물어세우듯 살아왔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걸려는 걸까. 내가 산티아고 가는 길 900km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가 글로도 썼듯 살면서 웃는 것 못지않게 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게다가 남자의 경우에는 더욱이 물고기를 못 찾아 자기 안의 눈물을 감추고 있지만, 때로 그것을 쏟아야 한다는 것. 이번 걷기 여행에서 그는 많이 물었다고 한다. 그 동안 내면에 쌓여있던 ‘속변같은 눈물’이었단다. 얼마나 후련했을까.

도보 여행은 이처럼 자신의 바닥까지 모두 드러내 보이는 시간을 가지는 틈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그는 여럿이 함께 가기 보다는 혼자 걷는 것을 권한다. 혼자여서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이렇게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정직하게 걸어내면 중간에 택시 타지 않고 대단한 철학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외 없이 누구나 늙는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담담한 늙음은 때로 젊음보다 멋진다. 그 담담하게 늙어가는 것이 곧 삶 아니겠는가. 멋지게 나이든다는 건 결국 자기다워지는 것, 그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내 삶의 마음 밭을 깊이 끝냈다. 씨앗을 뿌리려면 밭을 갈아엎어야 하듯 인생의 밭고랑을 갈아엎은 것이 바로 이 길이다. 900km라는 길을 걸은 것은 인생이 싫어서도 아니고, 극기 훈련 삼아 간 것도 아니고, 도전하기 위해 간 것도 아니다. 원가 다시하고 싶어서 걸은 거다. 같은 글을 쓰더라도 이전에 비해 더 새롭게,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이다.”

이번 걷기 여행으로 그는 새로이 삶을 리셋(Reset)했다. 그러나 언젠가 그의 삶에 다시 비계가 끼고, 삶이 안락한 소파처럼 되면 주저앉아 또 떠날 것이다.



도보 여행가 김효선이 추천하는 걸어볼 만한 길 5

세계적으로 도보 여행을 이끄는 주역이 바로 시니어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여행대신 그들의 호흡대로 천천히 구부러진 산길 들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빠름 빠름 빠름’을 외치며 속도전으로 치닫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추구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은퇴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을 위주로, 무엇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인문의 역사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소개한다.



전주의 아름다운 순례길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전동생강을 지나고 완주 송광사, 김제건 신부가 문문나비 성지, 병안백해 때 순교한 109의 순교자가 묻힌 천호성지, 익산의 미륵사지, 김제의 금산사를 둘러보며 만경강과 김제의 너른 들편을 따라 걷기도 하는 240km, 9박 10일간의 코스다. 2009년 10월 전라북도의 유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민족종교가 모여 소통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길로 선포를 하며 출발한 길이다. 2010년 문화재청이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의 길로 지정됐다. 종교를 떠나 경기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걸으며 전북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 솔박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온천, 횟동나 숲 찜질방을 이용해도 좋을 듯하며 시외버스를 타고 2박3일씩 다녀와도 좋다. 원주는 9박10일.



스웨덴 콩스레덴

북유럽 스웨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아비스코에서 출발, 라플란드를 지나 남쪽 해이반으로 이어진 430km의 아생지대를 걸어가는 길이다. 유럽의 마지막 아생지대로 불리며 소수민족인 사미와 순록들을 만날 수 있는 대자연 속의 트레일 코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자연 유산과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높지에서는 자작나무로, 강과 사나물은 철제나리로, 호수는 브트로 길을 이어놓았다. 텐트를 가지고 길 수도 있으나 구간마다 통나무집과 대피소가 있으며 가끔 자작나무를 태워 사나물을 즐기는 시설도 있다. 북유럽의 혹독한 추위로 이 길을 걷는 기간은 짧다. 이르면 5월에서 늦으면 10월까지이다.

한 마디 여행자의 시설 괜찮다. 길은 완만하여 유람에 온 50~70대가 많이 걷는다. 통신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도 많다. 4구간으로 나뉘져 있어서, 보통 구간별로 여행을 한다. 한 번에 원주하면서 26일 정도 소요된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

스페인 북부 동쪽 피레네 산맥 아래 국경을 몬세비에스에서 서쪽으로 800km거리에 있는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로 이르는 길을 말한다. 그곳에 예수의 제자 아고로의 무덤이 있어 9세기에 로마교황청이 성지 길로 선포 한, 1200년의 역사가 깊은 기독교성지 순례길이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길로 지정되었고,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순례자’의 배경이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곳이다. 산티아고 가는 길은 피랑스와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를 넘어 이베리아반도 스페인의 자치구 4개를 지나다. 나바라 라리오와 지역은 원만한 구릉이 이어지는 더할 나위 없이 향상적인 길이 펼쳐지고, 카스티아레온 지방의 길과 바람 많은 고원지대를 지나면 험한 칼리사야 준령을 넘는 고통의 길을 걷게 되지만 경외심을 불러 일으킬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길이다. 이 외에 산티아고 가는 또 다른 길인 비아 델라 플라다는 스페인 남쪽 세비야에서 출발 동쪽으로 메리다 살라망카 사모라 오렌세등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들을 따라 산티아고 콤포스텔로 가는 1000km의 길이다. 카미노 포르투게스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출발 파리파나 꼬нима브라 포르투 스페인과 국경을 이루는 미뇨강을 넘어 산티아고 콤포스텔로 가는 600km의 길이다.

한 마디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도보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는 코스다. 원주기간은 35~40일 정도.



미국 존 뮤어 트레일

탐험가이자 환경운동가이며 사이에클럽의 창시자인 존 뮤어의 이름이 붙여진 트레일 코스이다.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계곡에서 휴트니산까지 계곡과 호수 그리고 해발 3000~4000미터의 고지대 사이에라네바다 지역을 오르내리며 358km 거리를 하루 평균 16~19km 걸어 약 20일이 소요되는 대장정이다. 사이에클럽에 의해 1938년 완성된 길이고 1984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길이 특별한 이유는 자연보호를 위해 1년에 600명만 걸 수 있으며 신청자는 구간별 날짜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꾸려 가야하니 전 구간을 200일에 걸쳐 가야한다면 식량을 나눠 구간별 통과지역으로 보내 공급을 받아야 한다.

한 마디 도보 여행 최상급으로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되어야 갈 수 있다. 원주 기간은 20일 정도.



시코쿠 88사찰 순례길

일본의 큰 섬 4곳 중 가장 작은 섬인 시코쿠, 그곳 88개의 불교사찰을 따라 걷는 순례길이다. 시코쿠는 4개의 현으로 되어있으며 제주도의 10배 크기이다. 1번이 시작되는 밭심의 도장 구보사(미와현), 24번이 시작되는 수행의 도장 고치현(옛 도사국), 40번이 시작되는 보리의 도장 에히메현(옛 이요국), 미자와 88번 사찰이 있는 열반의 도장 가와와현(옛 사누키국이다). 일본의 불교는 백제와 신라로부터 전해져 시코쿠에 들어온 여러 절들을 9세기 쿠로보사가 정비하고 새로 개원하여 88개를 선정, 영지로 정하여 시작되었다. 순례자들은 흰옷에 사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으며 순례를 한다. 시코쿠의 주민들이 짐 암을 지나는 순례자에게 오세타이로 차나 과일, 떡, 우동 등을 접대하는 따뜻한 풍습이 있다.

한 마디 원주기간 45일 이상(1국을 일주일씩 나누어 해도 좋다).

배낭 안, 무엇을챙겨야 하나

배낭은 가능한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짐을 메고 걸어다니면 무릎과 발이 그 충격을 흡수하게 되므로 필요 이상을 가져갈 경우 가장 먼저 부상을 입기 쉬운 부위는 무릎과 발이다. 가볍고, 부피가 적은 것, 땀을 쉽게 뺏어내거나 거울처럼 물을 빨아들이거나 가벼운 신발을 구비해야 한다.

워킹슈즈 발목을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통기가 잘 되며, 가벼운 것이어야 한다. 거울처럼 여행할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있는 것을 고르도록.

워킹슈즈

워킹슈즈 발목을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통기가 잘 되며, 가벼운 것이어야 한다. 자유를 만끽하고 산다면 아주 유용하다. 특히 성수기에는 수영을 메트가 더 잘설친데, 수면용 메트만 있다면 어디서든 침침이 될 수 있다.

풀통 배낭에 넣고 빼기 힘든 1인용 물통 하나보다 1/2리터 물통 두 개를 가져가는 것이 편리하다. 도보 여행에서 물은 생명수나 다풀없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실 경우 오랜 도보 여행에 따른 피로와 물집, 기타 여러 증상을 현저히 줄이고 탈수도 예방한다고 한다.

PEOPLE

꿈꾸는 네 남자, 형제가 되다

남자에게 형제란 인생의 험난한 길을 함께 행군하는 전우와 같다.

지금 당신 곁에는 군장을 대신 짊어져줄 형제가 있는가?

누군가의 얼굴이 퍼뜩 떠오르지 않는다면

형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나선 네 남자, 이들을 주목하라.



사형제가 세상에 출시표를 던진 건 지난해 12월, 종로구 계동에 정통 황해도 한정식전문점 '더 하베스트'의 문을 열면서다. 더 하베스트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사나이답게 의기투합한 것. 각자 역할도 명확하다. 막형 이승준 씨는 황해도 전통요리 연구가인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로 주방을 책임지고 둘째 이승현 씨는 재무를 담당한다. 셋째 임대일 씨는 재고운영, 막내 배영민 씨는 기획 및 디자인이 주업무다. 이름의 돌림자를 보고도 짐작하겠지만, 승준 씨와 승현 씨만 친형제이고 대일 씨와 영민 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친구 사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서로를 악착같이 형제라 칭한다.

30초, 형제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

이들의 인연은 그리 오래전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승준 씨와 대일 씨는 2003년 '붉은악마' 응원 활동을 통해 안면을 익혔고, 승현 씨와 영민 씨는 2005년 영화 제작 일을 함께 하며 친해졌다. 이후 이들 넷은 곧잘 어울려 다녔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수시로 만나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면서, 그러다 2년 전 우연히 '일이' 터졌다. 승현 씨의 설명. "그랜드민트페스티벌(GMF)이라는 음악축제가 있어요. 재미 삼아 거기 부스를 하나 얻어 불고기덮밥을 판매하기로 했죠. 지금 멤버가 그때 구성된 겁니다. 호흡이 꽤나 잘 맞았어요. 이를 동안 함께하면서 자연히 파트도 나뉘었고…". 그때 나뉜 파트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당시 영민이와 저는 작은 식당을 구상하며 홍대 일대 매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축제가 끝나고 몇 달 후까지 별 진척이 없었죠. 그러던 차에 승준 형이 지금의 더 하베스트 얘기를 하며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약 30초. 우리가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걸린 시간이죠." 세 명의 동생이 막형의 제안을 단숨에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믿음 때문. 함께라면 즐거울 수 있다는 믿음 말이다.

사형제는 더 하베스트 오픈을 준비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다.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은 물론 작은 인테리어 소품까지 어느 것 하나 공들이지 않은 것이 없다. 준비 기간에는 단칸 오피스텔에서 9개월간 학숙을 하기도 했는데, 막형 승준 씨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 이렇게 말한다. "작은 방에서 함께 먹고 자고 작업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누구 하나가 없으면 너무 보고 싶을 정도로 가까워졌죠. 이 시간이 우리 형제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네남자

이후 사형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대일 씨는 넷이 모여 있으니 "뭐든 네 배가 되는 것"을 가장 좋은 점으로 꼽는다. 물론 대표로서의 부담감 등 그리 달갑지 않은 것들은 모두 4분의 1로 줄어드니 더욱 좋다. 영민 씨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다. "영화 <친구>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함께 있을 때 우린 두렵지 않았다.' 네 명이 함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성 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네 남자는 자신만의 끼를 맘껏 발산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기도 한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한 네 사람이 만나 무언가를 고민하다 보니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도출해낼 수 있어 좋다"는 승준 씨. 그도 그럴 것이 넷의 이력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의상디자인을 전공한 후 외식 업에 뛰어든 승준 씨와 영화 PD로 활동한 승현 씨. 연기를 전공한 후 시계회사 MD로 일한 대일 씨.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영민 씨… 살아온 과정이 다른 만큼 성격도 제각각이다. 승준 씨가 동생들 사이의 균형을 잡는 리더라면 승현 씨는 꼼꼼한 분석가이며, 대일 씨가 정리정돈을 잘하고 바지런하다면 영민 씨는 예술가 기질이 강하다. 대일 씨가 덧붙여 말한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확내는 포인트도 다 다르죠. 다행히 웃음코드는 같지만요."

물과 기름처럼 쉽사리 섞일 것 같지 않은 네 남자의 공통점이라면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하다는 것. 이 점이 사형제에겐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방향이 어긋나기라도 하면 각각의 생각들은 너무 세게 충돌하고 만다. 하나의 결론을 얻기까지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도 매우 길다. 다행히 형제들은 이 역시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리더의 말씀. "일과 후에 수시로 불만이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풀기 위해 노력하죠. 큰형으로서 동생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서로를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분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점을 동생들도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목표는 하나, 그러나 꿈은 네

그런 의미에서 더 하베스트의 지난 1년은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해도 좋다. 또다시 리더의 말씀. "한번은 승현이와 대일이가 간장게장에 들어가는 간장을 달이고 옮기다 손잡이가 끊어져 밭에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죠. 제가 아침에 나와 얘기를 들어보니 밤새 형이 걱정할까봐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둘 다 밤을 심하게 데어 한 달 정도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동생들을 보면서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웃고 울던 지난 1년을 발판 삼아 사형제는 이제 보다 큰 꿈을 꾼다. 그들만의 공간을 위한 궁극의 목표는 같지만 각각이 꾸는 꿈은 엄연히 다르다. 연극쟁이 대일 씨는 조그마한 소극장을, 영화꾼 승현 씨는 외식업 관련 영상사업단을 차차 꾸려볼 생각이다. 승준 씨는 지금의 역할을 이어 한식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갖고 있다. 영민 씨는 전방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무대를 더욱 넓히고 싶다고. 참고로 영민 씨의 프로젝트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그중 하나가 더 하베스트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이다.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플리마켓은 상업적 성격을 배제한 전통적 의미의 재래시장에 가깝다. "더 하베스트를 운영하기 전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놀았어요. 그러나 1년 전부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했죠. 간혀 지낸다는 답답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나가 놀지 못할 바에는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고요."

어디로 뛸지 도통 알 수 없는 이 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미쳐 전하지 못한 속 얘기를 한마디씩 꺼내달라고 청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랑한다"는 낯간지러운 고백을 늘어놓는다. 속스러움을 무릅쓰고 전한 진심은 잘 전달되었을까. 이쯤에서 털어놓자면, 이 매력적인 남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펼치기엔 지면이 너무 좁다. 기회가 될 때 사형제가 가꾼 공간에서 그들이 쌓아가는 추억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이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맛보는 행운은 덤이다.

"영화 <친구>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함께 있을 때 우린 두렵지 않았다.’
네 명이 함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형제는 황해도 한정식전문점 '더 하베스트'를 오픈하면서 준비 기간만 1년 이상을 소요했다.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은 물론 작은 인테리어 소품까지 어느 것 하나 공들이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기간에는 단칸 오피스텔에서 협숙을 하기도 했다.

THANKS TO



원일 국립국악관현의단 예술감독

고마운 이 순천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박용범 교수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멘토로서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교수님은 제 젊은 시절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힘에 대해 깨우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구례 화엄사에서 주최하는 음악제인 '화엄제'의 총감독으로서 음악과 과학을 삶의 영성(Spirituality)으로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계시지요. 교수님을 통해 저는 한 사람과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한 선물 박용범 교수님은 순천에 직접 지은 조그마한 집에 살고 계신데 그 공간을 밝혀줄 양조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피우며 마실 차(茶)도...

지금껏 저는 한 번도 교수님께 선물다운 선물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족들과 순천의 교수님 댁을 방문하고 싶어요.

감사의 인사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교수님과 나눈 대화는 제 삶에 큰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저로 하여금 독서와 공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는 듯합니다.



김은주 허리우드클래식 대표

고마운 이 박상기 선생님. 2010년에 허리우드클래식 관객으로 만난 분이자,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지금의 실버영화관을 개인 서비스로 간신히 운영하던 초기, 저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팔았는데 약 3000만원이 부족해 부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박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늘 웃는 김 대표가 왜 오늘은 얼굴이 어둡나?"고 물으시더군요. 망설이다 아주 어렵게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그날 바로 제게 3000만원을 건네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일이라 다행이다"면서요. 각서 한 장 받지 않으셨죠. "실버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며 우리 직원에게 제 주소를 물어 극장으로 옥들을 보내주신 것이 첫 인연이었고, 제가 감사 표시로 식사를 대접한 것이 두 번째, 그리고 그날이 겨우 세 번째 만남이었죠. 당시의 벽찬 감사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한 선물 외투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난겨울 어쩐지 좀 추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마저는 진심 어린 마음의 온기로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 3000만원 때문에 영화관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는데 박상기 선생님의 큰 은혜로 어려운 상황이 감사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계기가 저를 한층 성장시킨 것 같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에게 드리고픈 선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늘 그렇듯 올해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빚쳤다.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면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던 사람.

앞이 보이지 않아 망설일 때면 길을 가르쳐주던 사람.

여기 지면을 벌려 그에게 전한다. 미처 돌려드리지 못한 감사의 인사.



손의경 토이카노뮤지엄 대표

고마운 이 할머니故 흥태희 여사.

할머니는 제가 5살 무렵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요. 더욱이 저는 학사시절 내내 외과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자랐고 오랫동안 친기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늘 갖고 있었어요. 추사 이래 최고의 사에 대기로 꿇는 소전 손재형 선생이 바로 제 할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러나 저도 모르게 친기에 대한 배타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미흔을 잊둔 5년 전부터 친기에 대한 기억이 사로새록 뇌기 시작하다군요. 특히 할머니께서 장손자인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던 기억이 아련蛩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은 떠오르지 않지만 아마도 살아가면서 지어가 할 도리나 예의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느낌은 선명합니다. 손원경만을 참 많이 아끼시던 할머니의 마음…,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의 저를 키운 게 아닌가 싶네요.

그분을 위한 선물 그런 제사를 소홀히 했어요. 생각할 때면 놀 쳐스러웠는데, 이제는 친기와 외가 조부모님들을 기리면서 효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되고 싶어요. 가족 안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아울러 자식을 낳아 안겨드리면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되겠네요. 할머니께서 "우리 손주가 드디어 대를 이었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의 인사 생전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우동을 함께 앉아 맛있게 나눠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동을 즐기는데, 우동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적 저를 물에 압혀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그 얘깃들을 다시 하나씩 꺼내어 듣고 싶습니다.



이상미 마로니에북스 대표

고마운 이 문학평론가 이어령 선생님.

젊은 날 읽었던 이어령 선생님의 책들이 떠오릅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젊은이를 이끄는 석학이셨던 선생님은 지금도 여전히 시대의 지성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르침의 끈을 놓지 않고 활발히 활동하시는 선생님께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과의 첫 인연은 마로니에북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로니에북스 1001 시리즈' 중 한 권인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영화 1001〉의 저자 이세기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지요. 당시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어든이 되는 해에 맞춰 그동안 작업하신 저작들을 모두 모아 책을 기획하고 계셨는데, 그 저작을 구슬 페기 작업에 우리 출판사를 소개해주신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좋으셨는지 선뜻 저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행운을 주셨지요. 지금 저희는 선생님의 저작들을 수집하고 분류해 재편집하는 작업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어기(李爾基)를 나누면서 배우고 책을 만들기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기회에 그 책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분을 위한 선물 십년 전부터 저는 주말농장에서 직접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담갔는데 어느새 장독이 미당에 기득 찻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고추장을 참 좋아하십니다. 어느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드셔도 절대 고추장을 빼놓으시는 법이 없지요. 고추장을 좋아하시는 선생님께 직접 담근 고추장을 원장, 간장, 쟁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 선생님! 아직도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자취와 세상을 펼쳐보는 지혜는 저희가 살아갈 날에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모든 일에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은빛 설원의 국가대표 -
강원도에서 신나게 즐기자!



〈신나는 겨울축제〉 · 평창송어축제(2012. 12. 22 ~ 2013. 2. 3) · 대관령 눈꽃축제(2012. 12. 25 ~ 2013. 1. 5) · 내설악 강변축제(2012. 12. 28 ~ 2013. 1. 6)

· 홍천강 빛빛송어축제(2013. 1. 4 ~ 1. 20) ·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2013. 1. 5 ~ 1. 27) · 인제빙어축제(2013. 1. 19 ~ 1. 27)

· 태백산 눈축제(2013. 1. 25 ~ 2. 3)

〈강원도내 스키장〉 · 알펜시아리조트 (평창) · 하이원리조트 (정선) · O2리조트 (태백) · 대명비발디파크 (홍천) · 엘리시안 강촌 (춘천)

· 한솔오크밸리리조트 (원주) · 용평리조트 (평창) · 현대성우리조트 (횡성) · 보광휘닉스파크 (평창)

FASHION



한국타임즈 2012-12-4(17), 월드타임즈 2012-12-5(18), 월드타임즈 2012-12-5(19), 월드타임즈 2012-12-5(20), 월드타임즈 2012-12-5(21), 월드타임즈 2012-12-5(22), 월드타임즈 2012-12-5(23), 월드타임즈 2012-12-5(24), 월드타임즈 2012-12-5(25), 월드타임즈 2012-12-5(26), 월드타임즈 2012-12-5(27), 월드타임즈 2012-12-5(28), 월드타임즈 2012-12-5(29), 월드타임즈 2012-12-5(30), 월드타임즈 2012-12-5(31), 월드타임즈 2012-12-5(32), 월드타임즈 2012-12-5(33), 월드타임즈 2012-12-5(34), 월드타임즈 2012-12-5(35), 월드타임즈 2012-12-5(36), 월드타임즈 2012-12-5(37), 월드타임즈 2012-12-5(38), 월드타임즈 2012-12-5(39), 월드타임즈 2012-12-5(40), 월드타임즈 2012-12-5(41), 월드타임즈 2012-12-5(42), 월드타임즈 2012-12-5(43), 월드타임즈 2012-12-5(44), 월드타임즈 2012-12-5(45), 월드타임즈 2012-12-5(46), 월드타임즈 2012-12-5(47), 월드타임즈 2012-12-5(48), 월드타임즈 2012-12-5(49), 월드타임즈 2012-12-5(50), 월드타임즈 2012-12-5(51), 월드타임즈 2012-12-5(52), 월드타임즈 2012-12-5(53), 월드타임즈 2012-12-5(54), 월드타임즈 2012-12-5(55), 월드타임즈 2012-12-5(56), 월드타임즈 2012-12-5(57), 월드타임즈 2012-12-5(58), 월드타임즈 2012-12-5(59), 월드타임즈 2012-12-5(60), 월드타임즈 2012-12-5(61), 월드타임즈 2012-12-5(62), 월드타임즈 2012-12-5(63), 월드타임즈 2012-12-5(64), 월드타임즈 2012-12-5(65), 월드타임즈 2012-12-5(66), 월드타임즈 2012-12-5(67), 월드타임즈 2012-12-5(68), 월드타임즈 2012-12-5(69), 월드타임즈 2012-12-5(70), 월드타임즈 2012-12-5(71), 월드타임즈 2012-12-5(72), 월드타임즈 2012-12-5(73), 월드타임즈 2012-12-5(74), 월드타임즈 2012-12-5(75), 월드타임즈 2012-12-5(76), 월드타임즈 2012-12-5(77), 월드타임즈 2012-12-5(78), 월드타임즈 2012-12-5(79), 월드타임즈 2012-12-5(80), 월드타임즈 2012-12-5(81), 월드타임즈 2012-12-5(82), 월드타임즈 2012-12-5(83), 월드타임즈 2012-12-5(84), 월드타임즈 2012-12-5(85), 월드타임즈 2012-12-5(86), 월드타임즈 2012-12-5(87), 월드타임즈 2012-12-5(88), 월드타임즈 2012-12-5(89), 월드타임즈 2012-12-5(90), 월드타임즈 2012-12-5(91), 월드타임즈 2012-12-5(92), 월드타임즈 2012-12-5(93), 월드타임즈 2012-12-5(94), 월드타임즈 2012-12-5(95), 월드타임즈 2012-12-5(96), 월드타임즈 2012-12-5(97), 월드타임즈 2012-12-5(98), 월드타임즈 2012-12-5(99), 월드타임즈 2012-12-5(100), 월드타임즈 2012-12-5(101), 월드타임즈 2012-12-5(102), 월드타임즈 2012-12-5(103), 월드타임즈 2012-12-5(104), 월드타임즈 2012-12-5(105), 월드타임즈 2012-12-5(106), 월드타임즈 2012-12-5(107), 월드타임즈 2012-12-5(108), 월드타임즈 2012-12-5(109), 월드타임즈 2012-12-5(110), 월드타임즈 2012-12-5(111), 월드타임즈 2012-12-5(112), 월드타임즈 2012-12-5(113), 월드타임즈 2012-12-5(114), 월드타임즈 2012-12-5(115), 월드타임즈 2012-12-5(116), 월드타임즈 2012-12-5(117), 월드타임즈 2012-12-5(118), 월드타임즈 2012-12-5(119), 월드타임즈 2012-12-5(120), 월드타임즈 2012-12-5(121), 월드타임즈 2012-12-5(122), 월드타임즈 2012-12-5(123), 월드타임즈 2012-12-5(124), 월드타임즈 2012-12-5(125), 월드타임즈 2012-12-5(126), 월드타임즈 2012-12-5(127), 월드타임즈 2012-12-5(128), 월드타임즈 2012-12-5(129), 월드타임즈 2012-12-5(130), 월드타임즈 2012-12-5(131), 월드타임즈 2012-12-5(132), 월드타임즈 2012-12-5(133), 월드타임즈 2012-12-5(134), 월드타임즈 2012-12-5(135), 월드타임즈 2012-12-5(136), 월드타임즈 2012-12-5(137), 월드타임즈 2012-12-5(138), 월드타임즈 2012-12-5(139), 월드타임즈 2012-12-5(140), 월드타임즈 2012-12-5(141), 월드타임즈 2012-12-5(142), 월드타임즈 2012-12-5(143), 월드타임즈 2012-12-5(144), 월드타임즈 2012-12-5(145), 월드타임즈 2012-12-5(146), 월드타임즈 2012-12-5(147), 월드타임즈 2012-12-5(148), 월드타임즈 2012-12-5(149), 월드타임즈 2012-12-5(150), 월드타임즈 2012-12-5(151), 월드타임즈 2012-12-5(152), 월드타임즈 2012-12-5(153), 월드타임즈 2012-12-5(154), 월드타임즈 2012-12-5(155), 월드타임즈 2012-12-5(156), 월드타임즈 2012-12-5(157), 월드타임즈 2012-12-5(158), 월드타임즈 2012-12-5(159), 월드타임즈 2012-12-5(160), 월드타임즈 2012-12-5(161), 월드타임즈 2012-12-5(162), 월드타임즈 2012-12-5(163), 월드타임즈 2012-12-5(164), 월드타임즈 2012-12-5(165), 월드타임즈 2012-12-5(166), 월드타임즈 2012-12-5(167), 월드타임즈 2012-12-5(168), 월드타임즈 2012-12-5(169), 월드타임즈 2012-12-5(170), 월드타임즈 2012-12-5(171), 월드타임즈 2012-12-5(172), 월드타임즈 2012-12-5(173), 월드타임즈 2012-12-5(174), 월드타임즈 2012-12-5(175), 월드타임즈 2012-12-5(176), 월드타임즈 2012-12-5(177), 월드타임즈 2012-12-5(178), 월드타임즈 2012-12-5(179), 월드타임즈 2012-12-5(180), 월드타임즈 2012-12-5(181), 월드타임즈 2012-12-5(182), 월드타임즈 2012-12-5(183), 월드타임즈 2012-12-5(184), 월드타임즈 2012-12-5(185), 월드타임즈 2012-12-5(186), 월드타임즈 2012-12-5(187), 월드타임즈 2012-12-5(188), 월드타임즈 2012-12-5(189), 월드타임즈 2012-12-5(190), 월드타임즈 2012-12-5(191), 월드타임즈 2012-12-5(192), 월드타임즈 2012-12-5(193), 월드타임즈 2012-12-5(194), 월드타임즈 2012-12-5(195), 월드타임즈 2012-12-5(196), 월드타임즈 2012-12-5(197), 월드타임즈 2012-12-5(198), 월드타임즈 2012-12-5(199), 월드타임즈 2012-12-5(200), 월드타임즈 2012-12-5(201), 월드타임즈 2012-12-5(202), 월드타임즈 2012-12-5(203), 월드타임즈 2012-12-5(204), 월드타임즈 2012-12-5(205), 월드타임즈 2012-12-5(206), 월드타임즈 2012-12-5(207), 월드타임즈 2012-12-5(208), 월드타임즈 2012-12-5(209), 월드타임즈 2012-12-5(210), 월드타임즈 2012-12-5(211), 월드타임즈 2012-12-5(212), 월드타임즈 2012-12-5(213), 월드타임즈 2012-12-5(214), 월드타임즈 2012-12-5(215), 월드타임즈 2012-12-5(216), 월드타임즈 2012-12-5(217), 월드타임즈 2012-12-5(218), 월드타임즈 2012-12-5(219), 월드타임즈 2012-12-5(220), 월드타임즈 2012-12-5(221), 월드타임즈 2012-12-5(222), 월드타임즈 2012-12-5(223), 월드타임즈 2012-12-5(224), 월드타임즈 2012-12-5(225), 월드타임즈 2012-12-5(226), 월드타임즈 2012-12-5(227), 월드타임즈 2012-12-5(228), 월드타임즈 2012-12-5(229), 월드타임즈 2012-12-5(230), 월드타임즈 2012-12-5(231), 월드타임즈 2012-12-5(232), 월드타임즈 2012-12-5(233), 월드타임즈 2012-12-5(234), 월드타임즈 2012-12-5(235), 월드타임즈 2012-12-5(236), 월드타임즈 2012-12-5(237), 월드타임즈 2012-12-5(238), 월드타임즈 2012-12-5(239), 월드타임즈 2012-12-5(240), 월드타임즈 2012-12-5(241), 월드타임즈 2012-12-5(242), 월드타임즈 2012-12-5(243), 월드타임즈 2012-12-5(244), 월드타임즈 2012-12-5(245), 월드타임즈 2012-12-5(246), 월드타임즈 2012-12-5(247), 월드타임즈 2012-12-5(248), 월드타임즈 2012-12-5(249), 월드타임즈 2012-12-5(250), 월드타임즈 2012-12-5(251), 월드타임즈 2012-12-5(252), 월드타임즈 2012-12-5(253), 월드타임즈 2012-12-5(254), 월드타임즈 2012-12-5(255), 월드타임즈 2012-12-5(256), 월드타임즈 2012-12-5(257), 월드타임즈 2012-12-5(258), 월드타임즈 2012-12-5(259), 월드타임즈 2012-12-5(260), 월드타임즈 2012-12-5(261), 월드타임즈 2012-12-5(262), 월드타임즈 2012-12-5(263), 월드타임즈 2012-12-5(264), 월드타임즈 2012-12-5(265), 월드타임즈 2012-12-5(266), 월드타임즈 2012-12-5(267), 월드타임즈 2012-12-5(268), 월드타임즈 2012-12-5(269), 월드타임즈 2012-12-5(270), 월드타임즈 2012-12-5(271), 월드타임즈 2012-12-5(272), 월드타임즈 2012-12-5(273), 월드타임즈 2012-12-5(274), 월드타임즈 2012-12-5(275), 월드타임즈 2012-12-5(276), 월드타임즈 2012-12-5(277), 월드타임즈 2012-12-5(278), 월드타임즈 2012-12-5(279), 월드타임즈 2012-12-5(280), 월드타임즈 2012-12-5(281), 월드타임즈 2012-12-5(282), 월드타임즈 2012-12-5(283), 월드타임즈 2012-12-5(284), 월드타임즈 2012-12-5(285), 월드타임즈 2012-12-5(286), 월드타임즈 2012-12-5(287), 월드타임즈 2012-12-5(288), 월드타임즈 2012-12-5(289), 월드타임즈 2012-12-5(290), 월드타임즈 2012-12-5(291), 월드타임즈 2012-12-5(292), 월드타임즈 2012-12-5(293), 월드타임즈 2012-12-5(294), 월드타임즈 2012-12-5(295), 월드타임즈 2012-12-5(296), 월드타임즈 2012-12-5(297), 월드타임즈 2012-12-5(298), 월드타임즈 2012-12-5(299), 월드타임즈 2012-12-5(300), 월드타임즈 2012-12-5(301), 월드타임즈 2012-12-5(302), 월드타임즈 2012-12-5(303), 월드타임즈 2012-12-5(304), 월드타임즈 2012-12-5(305), 월드타임즈 2012-12-5(306), 월드타임즈 2012-12-5(307), 월드타임즈 2012-12-5(308), 월드타임즈 2012-12-5(309), 월드타임즈 2012-12-5(310), 월드타임즈 2012-12-5(311), 월드타임즈 2012-12-5(312), 월드타임즈 2012-

THIS CAR



디자인과 첨단 기능이
균형을 이루다
디자이너 김영세가 바라본 K9

기아자동차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 K9은 기능과 디자인의 접점을 통해 두 가지 특징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

첨단 기능이 장착된 차량은 진취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여, 해외 명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김영세가 말하는 K9의 매력을 소개한다.

작성일자(03-760-1000)

"우리나라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디자인 감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자동차다." 인터뷰 전 일주일간 K9을 시승한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의 첫 마디였다. 혁신적인 디자이너로 명성이 높은 그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에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가 나오면 시승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김영세 회장은 200대 이상의 차량을 시승해보았다고 한다. 상용화되지는 못했지만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모티브로 전기자동차 디자인을 하기도 했다.

디자인 감각은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K9의 매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쇼퍼드리븐(운전기사를 두고 타는 차)일 뿐만 아니라 직접 운전을 해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쇼퍼드리븐카가 편안한 승차감과 안전성, 뒷좌석의 편의장치에 비중을 둔다면 오너드리븐카는 동력과 연비 등 자동차의 기본 성능을 중시하는 편이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인 K9은 기능과 디자인의 접점을 통해 두 가지 특징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는 것.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 사용자를 설정한 뒤 그의 입장에서 상상해보아야 한다. 무엇을 좋아할지, 어떤 기능에 관심을 보일지, 공감을 이끌어낼 감성은 무엇일지를 고민한 뒤 콘셉트를 구상해야 더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자동차는 실내 디자인에서 외관 디자인으로 옮겨가

야 한다. 차량을 구입한 사람, 즉 사용자는 차량의 외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기기를 조작하며 승차감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순간의 첫 만남이 어떠하나에 따라 차량을 구입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진취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프리미엄 세단 K9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도전 정신이 강한 이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국내 최초로 장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첨단 기능이 망라되어 최고 자동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영세 회장도 인정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6만5000색의 그래픽을 써서 입체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속도, 내비게이션, 애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상황, 후방 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장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보여지는 위치를 조절하고, 텍스트의 색상도 선택할 수 있다.

K9의 후측방 경보 시스템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리며, 필요하다면 해당 방향의 운전석 시트까지 진동시킨다. 또한 기본적인 사각지대 감지 기능(BSA, Blind Spot Assist) 외에 차선 변경 지원 기능(LCA, Lane Change Assist)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선 변경 지원 기능은 차량 뒷부분에 장착된 두 개의 레이더가 후측방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까지 감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는 시각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운전자의 차선 변경 판단에도움을 준다.

이 외에 변속기와 레버를 전자통신 제어로 조정하는 전자식 변속 레버, 차량 방향과 속도에 따라 각도 및 밝기를 조절하는 애티브 풀LED 헤드램프, 9.2인치 대형 화면에 통합 조작기가 적용된 DIS 내비게이션, 주차 시 차량의 앞·뒤·좌·우를 보여주는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 등 첨단 기능으로 편의성이 뛰어난다.

앞서 김영세 회장이 말했던 K9의 매력은 오너드리븐카뿐 아니라 쇼퍼드리븐카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점이다. 넓은 실내 공간, DVD와 DMB 시청이 가능한 뒷자석 듀얼 모니터 등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를 위한 배려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조용하고 안락한 주행.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차량은 최고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TO THE GREATEST
K9



내기 위해 디자인한 것이 가장 과학적이며 심미적으로도 아름답다는 의미다. 독일 바우하우스에서 시작해 현재 디자이너들의 보편적인 디자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은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의도하는 바를 따른다(Design follows designer's intention)'고 말한다. 이는 K9의 디자인 컨셉트와도 맞닿아 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기본에 충실히 되 디자이너 고유의 감성을 더해 생명력 있는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다.

"디자인은 인터랙션(interaction)이다. 디자이너와 소비자 간의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와 디자이너 간의 인터랙션도 중요하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여러 명의 디자이너가 함께 작업을 한다. 그런데 인터랙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완성품이 나오겠는가. K9을 보고 좋다,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관과 외관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진취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실내 디자인은 차량 외부로 이어진다. 차량 정면을 바라보면 당당한 남성의 모습이 연상된다."

자동차의 얼굴과 표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존의 모델에 비해 더 크고 넓게 디자인되고, 좌우 펜더까지 파고들어간 헤드램프와 램프 위쪽에 삽입한 눈썹 모양 그래픽은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K9의 차체를 보더라도 비례를 통해 역동성을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트렁크의 길이는 후드 길이의 절반일 때 중립적 이미지를 주고 그보다 길면 보수적인 이미지를, 짧으면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지는데 K9의 트렁크 비례는 후드의 절반보다 짧아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역동적인 이미지는 측면 벨트라인의 높이로 이어진다. 벨트라인이 낮아 유리창이 넓어지면 개방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반대로 벨트라인이 높아져서 측면 유리가 좁아지면 공격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 K9은 벨트라인을 높게 해서 가늘고 긴 형태의 유리창을 통해 깊고 역동적인 느낌을 준 것이다.

"K9을 타보니 10년 전쯤 미국 잡지에서 본 자동차 광고가 떠올랐다. 근사한 집 차고 안쪽에 고급 스포츠카가 서 있고 차량이 나간 빙자리에 광고 브랜드 로고만 새겨진 이미지였다. 스포츠카를 놔두고 탈 만큼 매력적인 세단이라는 것을 절묘하게 표현한 광고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스스로 운전해도 스포츠카처럼 좋은 차, K9을 대입해도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사용자나 제품의 본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외관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디자인 철학과 K9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대뜸 "K9이 좋다"라고 말한 첫마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HEALTH



아직도 위암을 두려워하는가?

암은 머리카락을 제외한 인체 모든 부위에서 발병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만큼 각양각색의 암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암은 단연 위암이다. 대체 위암이 뭐길래?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위암센터 김병식 교수가 위암과 관련해

우리나라 남자가 가장 잘 걸리는 암 1위는 바로 위암이다.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등을 모두 앞질렀다. 최근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위암에 걸릴 확률은 9.1%. 이는 자그마치 여성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대체 남성은 왜 이토록 위암에 취약한가. 김병식 교수는 “통계상으로 50~60대 남성의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다. 몇몇 연구자는 술이나 담배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조기 위암 수술 95% 성공

위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약물과 수술. 그러나 완치율이 50~60%에 이르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선 수술이 가장 완전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수술은 개복수술, 복강경수술, 로봇수술로 나뉜다. 이 중 어떤 수술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 환자 개개 확대해 들여다보며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복수술보다 오히려 정확하고 정교하다는 것. 복강경수술 비용은 기구 활용 등으로 개복수술보다 1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따름이다. 이보다 7~8배 이상 더 비싼 로봇수술도 그 결과에서는 복강경수술과 거의 차이가 없다. 로봇수술은 위나 장이 아닌 전립선과 같은 공간이 협소한 부위에서 빛을 발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순위	남자 (평균수명 77세)		여자 (평균수명 84세)	
	임종	확률(%)	암종	확률(%)
1	위	9.1	갑상선	7.9
2	대장	7.0	유방	4.2
3	폐	7.3	대장	5.0
4	간	5.1	위	4.8
5	전립선	4.2	폐	3.2
6	갑상선	1.6	간	2.2
7	방광	1.3	자궁경부	1.4
8	췌장	1.2	담낭 및 기타 담도	1.5
9	담낭 및 기타 담도	1.2	췌장	1.2
10	신장	1.0	난소	0.7

짠 음식을 피하라!

지금까지 밝혀진 위암의 주범은 짠 음식. 간장이나 된장을 밥상에서 빼놓지 않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교수는 “암은 식습관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잘 발생한다. 대 가족을 형성하던 옛날에는 가족 구성원이 섭취하는 음식 물이 동일했다. 모두 함께 밭 암물질에 접촉함으로써 일정 시기가 되면 같은 암에 걸리는 것이다. 요즘엔 대가족 체계가 무너져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환경적 요인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싱겁게 먹기.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분명 효험은 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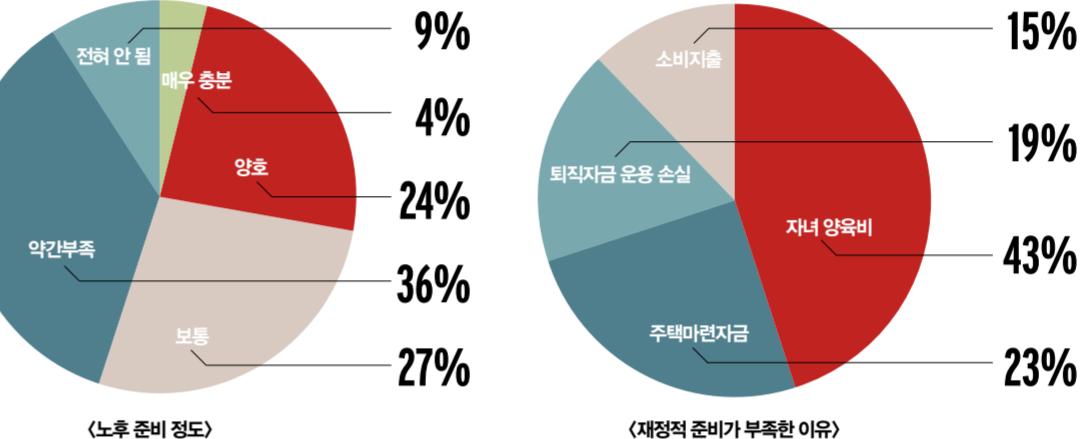
그러나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다른 부수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병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김 교수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기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2차 예방 법이 될 수 있다. 위암학회는 40대 이후부터 1년에 한 차례 씩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직계가족 중 위암 환자가 2명 이상이라면 30대부터 받는 게 좋다.” 내시경 검사

FINANCE

아녀 결혼비용 보탠다고
집 크기 줄이지 마세요

또한 결혼 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결혼 후에 빚더미에 앓게 되는 현상을 '나문푸어'라고 할 정도로 결혼 비용은 결혼 적령기 청춘들에게 걱정거리다.

이만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세대는 부모들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허리가 훨 정도로
한 것도 모자라 자녀 결혼으로 다시 빚을 내는 게 현실이다.



자녀들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부모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후 계획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까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부모는 물론 자녀에게도 불행한 일이 된다. 당장이야 자녀들이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노후 준비를 못한 부모들은 노후에 경제적 지립을 하지 못하고, 이것은 다시 자녀들의 부모 불안 분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이들이 자녀에 신경 쓰느라 노후 대비를 잘 못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 10월에 열린 2012 서울 국제시니어엑스포 50대 방문객 8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으며,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이들이 자녀 양육비를 꼽았다.

물론 자녀에 대한 투자를 무작정 아낄 수는 없다. 세상에 하나뿐인 자녀는 당연히 자신의 인생을 보람 있게 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자금 관리는 가족 모두에게 불행의 씨앗을 남긴다. 자신에게 필요한 은퇴자금의 규모를 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 내에서 자녀에게 투자할 비용 규모를 정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은퇴 플랜이 될 것이다.

분	모든 조건 적용 시	국민연금 없고 주택 차분 시	비고
자산 지금	35만원	35만원	보유 금융 자산 1억원을 종신연금 월수령액으로 환산 (생명보험회사 최저보증이율 적용) 했으며, 30년 보증, 66세 수령 기준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10월 31일 기준
연금	147만원	-	50세, 현재 월평균 소득 389만원 63세 수령 기준
연금	74만원	-	3억원 아파트, 60세 수령

일본 시니어들의 해외 투자, 나당한 이유 있다

인 개인 전체의 금융자산은 약 1,483조 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 중 60%를 60대의 시니어들이 보유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은행(IB)들이 이들의 막대한 자산을 노리고 예에 진출했지만 일본 대형은행에 놀려서 한 예가 드물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들의 안정 지향적 투자 성향에서 그 이유를 수 있다.

정기예금 금리는 0.02~0.03%에 하다. 예금성 자산에 의지할 경우, 고수익은 초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에 따라 고수익을 하고자 하는 일본 시니어들은 해외로 눈을 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외화표시채권이다. 그들의 특징은 발행하는 회사와 통화의 국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통화는 터키인식이다. 원화로 발행되는 채권은 이자가 높아지만 리라화로 발행하면 6%대로 급등한다. 변동에 의해 환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역으로 억까지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 '월급 펀드', '용돈 펀드'로 알려져 있는

매월 분배형 펀드를 받는다. 기존 펀드 목돈을 만드는 방식 목돈을 맡기고 매년 노후 생활 자금을 이유로 일본에서 분배형 펀드 역시 펀드의 주요 투자리츠에 집중되며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구성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있고, 저금리 저상환 견뎌왔다. 마땅한 시행착오를 겪어온 바가 크다. 그들처럼 닥칠 우리의 모습은 시니어들의 투자 어떨까? 한국 시장은 추천해보고자 한다. 첫째, 동남아시아에

도 일본 시니어들의 사랑을
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식이라면, 매월 분배형 펀드는
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월
해외 시장에 집중돼 있다. 이
처는 저수의 안정형의 경우 미국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엔
등 동남아 신흥국 채권 위주로
고령화 정도가 10년 이상 앞서
장의 지난한 시기를 오랫동안
투자 대상 찾기에 끊임없는
찾았다는 점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현재 상황은 바로 조금 후에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전략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보면
여러들에게 몇 가지 투자 방안을
. 등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매월 분배형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발매되고 있다. 동남아는 아직 채권 이자율이 높아 매월 배당을 받아도 의미 있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수익도 노릴 수 있다. 둘째,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주가 지수를 보면 고가를 간신히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소비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저임금과 성장성을 노린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쇄도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외화표시채권도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관련 상품이 출시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과거 브릭스(BRICS)를 대표로 하는 신흥국 투자가 일시적으로 유행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들해진 상황이다. 물론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리만 쇼크나 유럽 재정 위기를 통해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이



꼭 안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은 이미 무너졌기에
무턱대고 신흥국 투자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저금리 등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해외 분산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의 자산을
해외 시장 등 성장성 높은 곳에 투자하여 자산의
밸런스를 보완하는 것도 좋다.

COMMUNITY



홈인스테드코리아 기부 캠페인 “어르신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홈인스테드코리아(www.homeinstead.co.kr)가 소외 어르신을 위한 기부 행사 '2012 BASTAS 어르신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를 진행한다. 지난 11월 한 달간 강남센터 입주 직원 및 주택임대 입주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기증받았으며, 오는 12월 4일 오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홈인스테드의 BASTAS(Be A Santa To A Senior) 캠페인은 전 세계 17개국이 동시에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세계 1위의 시니어 케어 기업으로서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사회적 책임을 다해 보살피자는 것이 캠페인 개최의 취지다. 올해에는 기증받은 선물을 충북 청원군에 있는 초청노인복지재단 오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홈인스테드코리아 박은경 대표는 “우리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BASTAS 캠페인은 온 누리에 사랑과 기쁨을 전해온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사회공헌 행사이다. 많은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선물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외롭게 연말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작은 행복을 얻어가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 돋는
게릴라 봉사단
“봉사는 남보다
나를 돋는 일”

©etymimages/mutis

봉사활동 하면 떠오르는 것은 강인한 체력과 열정. 바로 젊음의 키워드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젊음을 되찾는 이들이 있다. ‘게릴라 봉사단(<http://club.yourstage.com/bongsa>)’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언제 어디라도 힘든 곳이 있으면 게릴라처럼 달려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이름 지은 게릴라·봉사단은 지난 8월에 만들어졌다.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는 시니어들이 관련 클럽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의기투합한 것.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봉사, 노숙자들을 위한 배식 봉사, 어르신들을 위한 영정사진 촬영 봉사 등 회원들 대부분이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클럽 회원 수는 35명. 이들은 매달 1회 정기 봉사활동 모임을 열며,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게릴라·봉사단 회원들은 한 목소리로 봉사 자체를 즐긴다고 말한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남을 돋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을 돋는 일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봉사를 시작한 뒤로 밝아진 얼굴에 젊어졌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 가족들의 응원도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

“가족들이 더 좋아해요. 본인들도 나이가 들면 나중에 어머니처럼 살겠다고 할 정도예요. 회원 중 어떤분은 아들이 응원을 응석이 있어요. 봉사활동하고 있는 곳 근처에 아들 직장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따뜻한 우유와 빵을 사 가지고 왔어요. 회사 동료와 함께 말이에요.”

게릴라·봉사단의 대표적인 과동선 시삽의 말이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게릴라·봉사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최근부터는 시니어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게끔 자체 규정도 변경했다. 회원 가입은 시니어 포털 사이트 ‘유어스테이지(www.yourstage.com)’에서 하면 된다.



양 선생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과 관련한 걱정거리나 궁금증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케어 코디네이터 양 선생님이 꼼꼼히 살펴보고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yang@homeinstead.co.kr



양명주 케어 코디네이터 양 선생님이 꼼꼼히 살펴보고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비의료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 [홈인스테드코리아](http://www.homeinstead.co.kr)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긍한스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Q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거리기 아빠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아내와 자녀는 캐나다에서 지내고 일 때문에 저만 홀로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 사별하신 뒤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성격이 적극적인 편은 아니어서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연세는 73세로, 바깥 활동도 안 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않아서 그동안 자주 찾아서 살펴드렸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어머니를 살펴드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외 출장을 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45세 아들, 무역회사 임원)

A 거리기 아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어머님까지 돌보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께서 참으로 훌륭한 아들을 두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73세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 연세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성품이 성용하신 편이라 사회적 교류가 많지 않으신 것 같네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적 교류는 정신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 고객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시던 하지만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는 여성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가족들이 직장에 가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해 자녀들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 저희 케어기자가 일주일에 두 번 고개 뒤를 봉행했습니다. 주로 제공한 서비스는 정서적 지원 서비스로 ‘말벗 되어드리기’ ‘영화관 함께 가기’ ‘신작’ ‘간단한 실내 게임’ 등이었습니다. 서비스 후에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한다는 미안함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도 전보다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게 됐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낯선 사람이나 오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신가요? 다음 사연을 보시면 좀 안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객 중 여성 어르신이 계시는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집안일을 손수 하십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위해 자녀들이 저희에게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서비스 이용을 반대하셨습니다. 외부인이 자신의 집에 오가는 것이 싫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열심히 아버님을 설득했고, 마침내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서비스 이후 아버님께서는 어머님보다 더 저희 서비스를 좋아하시게 됐습니다. 아마도 전과 달라진 아내 모습을 보고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에게 고맙다는 표현도 하시고 가끔 간식도 사들고 오시기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집 안에만 계시면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머님을 보살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가족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앞서 고객 사례로 말씀드린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어머님 연세를 고려해 바깥 활동에 대한 플랜을 제안드리자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백화점, 쇼핑몰, 레스토랑 외출 등), 설날 기족 모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만두빚기, 윷놀이, 영화보기 등),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산책, 가벼운 체조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단한 집안 관리(식사 준비,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어머님의 품격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서비스(화장, 네일아트, 염색, 사진찍기 등)입니다. 홈인스테드코리아는 자녀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Home Instead
시니어 케어

가족처럼 돌보는 어르신의 동반자
문의 02-3218-6243 www.homeinstead.co.kr

홈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의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17개국, 900여 개의 네트워크를 통해 오랫동안 경증받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인스테드코리아](http://www.homeinstead.co.kr)는 이와 동질의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기버(CAREGiver™)’는 단계별 채용 과정을 거치고, 상시 교육과 일학습 관리 이루어지므로 믿고 어르신 케어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Smart Senior, Welcome To SENIOR REPORTER!



대한민국 No.1 시니어포털 유어스테이지에서

당신을 **시니어리포터**로 모십니다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www.yourstage.com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시니어리포터란?

주변에서 일어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 공감이 가는 좋은 글귀 등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 정보를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서로 나누는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문의 02-3218-6234 · help@yourstage.com (주)시니어파트너즈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포털사이트 유어스테이지(www.yourstage.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NFOPACK

눈에 띠는 12월 아이템

시간은 빠르게 연말을 향해 달리고,
그럴수록 마음은 괜스레 헛헛하기만 하다.
이 분위기를 단숨에 날려버릴 만한 일이
어디 있을까. 여기,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몇 가지 아이템이 있다.



Ski Jacket

슬로프의 주인공을 위한 단 하나의 재킷

겨울이 시작되면 눈 덮인 슬로프부터 떠올리는 당신, 특별한 스키 재킷을 입을 자리를 충분하다. 이를테면, 에르메네질도 제네바의 스포츠 라인 제나스포츠에서 출시한 '모크론 플러스 더블 프론트 스키 재킷' 같은 것 말이다. 모노크롬 플러스 더블 프론트 스키 재킷은 얼핏 보면 그저 세련된 디자인의 스키 재킷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킷의 진가는 다른 곳에 숨어 있다. 바로 소매의 레드 라인 속에서 빛나는 LED 조명이 그것. 내파 포켓 속 스위치로 점등이 가능하여 USB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다. 눈 덮인 야간 슬로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선택할 것. 문의 02-2240-6521



LOVE Charity

필요한 건 오직 사랑뿐

연말은 사랑을 나누는 시기다. 소중한 이와 특별한 선물을 나누는가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도 한다. 끼리띠에는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주얼리 라인, 러브 컬렉션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12월 한 달간 청담동 끼리띠에 매장에서 러브 브레이슬릿(LOVE Bracelet)을 적용한 국내 정상급 스타 10인의 사진 전시회를 열고 LOVE 이벤트라 불리는 자선행사를 개최하는 것. 이 행사는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다. 끼리띠에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LOVE 컬렉션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국제 기구 IVI와 함께 전 세계 어린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기부한다. 끼리띠에의 LOVE 이벤트에 동참하면 기부도 어렵지 않다.

비트스의 노래 제목처럼 'All you need is LOVE' 일뿐이다. 문의 1566-7277



Bedding

이주 사적이고 특별한 럭셔리

침실은 아주 사적인 공간이다. 타인에게는 되도록 공개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로 과시를 위함이 아닌 진정한 자기만족을 위한 최상의 럭셔리일 수 있다. 지난 10월부터 미국 백악관의 미스터 베드룸을 장식한 침구를 내 침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미국의 최고급 품질 제품을 국내 인방으로 배송해주는 인터넷 쇼핑몰 Julio(www.julo.co.kr)가 운영하는 것. "내 집에 두고 싶을 정도의 제품이 아니면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브랜드 설립자의 신념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최고의 품질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한다. 문의 02-3445-1501



Limited Watch

바쉐론 콘스탄틴 말테 컬렉션의 백년해로

고급 시계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역사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시계 메이커 바쉐론 콘스탄틴의 257년 이력에 한 페이지로 장식한 모델 중 하나인 '말테 컬렉션이 100주년을 맞이했다. 로마 숫자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사랑받아온 말테 컬렉션 | 100주년 기념판 모델을 출시했다. 각각의 케이스 후면에 고유 숫자를 새겨 한정 모델을 소유한 기쁨을 배가시켰고, 블루 악어기죽 스트랩을 사용함으로써 말테 크로스 모양의 플레이너 달력을 장착했다. 12월 초에 새롭게 오픈하는 현대백화점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796-4510



손목에 완성하는 블랙타이 룩

손목시계야말로 정교한 기술력과 장인의 손으로 완성한 나노 예술의 짐작체다. 건축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시계는 그래서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 피아제 블랙타이 컬렉션의 완성판 구버너(Gouverneur)는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고급시계박람회(하이마)에서 첫선을 보았다. 케이스에서 디아일ог까지 원형과 타원형을 번복하며 건축미를 살린 구버너의 디자인은 당시 많은 참가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구버너가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DNA를 공유하는 두 사람의 장인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공동 제작했다는 것 때문이다. 피아제 블랙타이 컬렉션의 모든 모델을 디자인한 아버지와 '메뉴파처 드 오트 오르로제리 피아제(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Piaget)'에서 함께 일하는 아들이 바로 그들. 구버너 라인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뚜르비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모델에 피아제 자체제작 800P, 882P, 642P 무브먼트가 장착되었다. 지난달부터 국내에서 정식 판매하기 시작한 구버너는 피아제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0-5656

Watch



Leather Goods

특별한 남자를 위한 특별한 가죽 제품

남자의 선물을 고르는 것은 어렵다. 그 상대가 높은 안목과 취향을 가진다면 벨루ти의 '가스파드 컬렉션'이 그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다. 가스파드 컬렉션은 반지갑, 키드 홀더, 장지갑, 지퍼 장지갑으로 구성된 4종의 지갑 라인. 모두 벨루티가 자랑하는 지갑의 앞과 뒤에 제작됐다. 가스파드는 지갑의 앞과 뒤에 대담한 절개를 넣어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음영을 더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했다.

문의 02-3446-1895



CULTUR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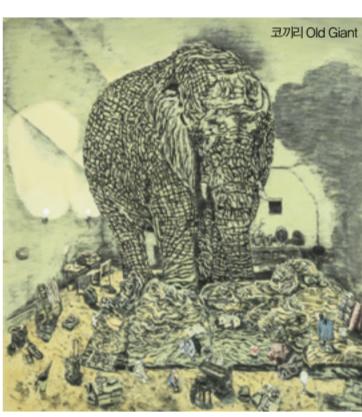
반 고흐 in 파리

수식이 필요 없는 화가 반 고흐(1853~1890). 188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고흐는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반 고흐 in 파리〉은 고흐가 작품 활동을 펼친 10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는 '파리시기(1886~1888)'를 집중 조명한다. 이 시기 네덜란드의 전통회화를 담습하던 리얼리스트 청년 화기의 화풍은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인상주의에서는 새로운 양식을 발견한 고흐는 사실주의적 현실을 빛의 풍경으로 탈바꿈시킨다. 고흐가 리얼리스트에서 모더니스트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시는 고흐의 예술세계를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유화작품 60여 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다수의 자화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전시의 빠뜨릴 수 없는 묘미다.

〈반 고흐 in 파리〉는 내년 3월 24일까지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의 1588-2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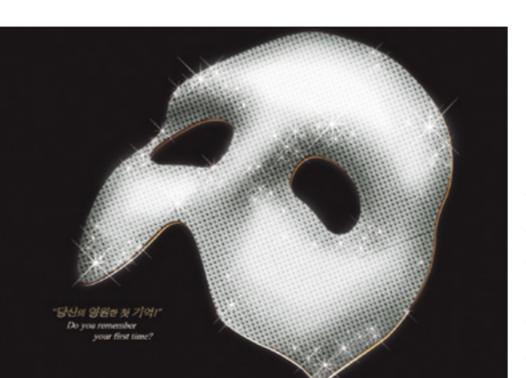
어느 특별한 하루

전통 수묵화에 현대적 기법을 가미해 한국 미술사에 새로운 경향을 제시한 한국회가 유근택. 이번에 그가 아주 특별한 '하루'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을 오롯이 미국에서 보내며 그린 산작 30여 점을 내놓은 〈하루〉은 그것이다. 그가 주요 소재로 다른 것은 실내와 청밖 풍경 그리고 자주 찾던 공원과 해변. 그러나 그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겼던 대상들은 원래의 형태나 크기를 훌쩍 벗어난다. 기끼에서 만지고 호흡할 수 있는 주변 사물들 속에서 세상의 놀라움을 포착해낸 셈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관념적인 한국회를 보다 친밀한 무엇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미덕이다. 유근택의 특별한 하루는 12월 9일까지 갤러리현대 본관에서 계속된다. 문의 02-2287-3591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준 소중한 사람

유덕화, 아직도 그를 밤거리나 집주하는 유대로운 청춘으로 기억하는가? 어느 그도 나니 선을 출찍 넘겼다. 이제껏 출연한 영화만도 자그마치 100편이 넘는다. 보다 새로운 모습의 유덕화를 만나고 싶다면 이번이 기회다. 영화 〈심플라이프〉는 유덕화의 더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천녀유흔〉, 〈황나비〉 등을 제작한 홍콩의 저명한 프로듀서로서 리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심플라이프〉는 혼육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정을 나누는 두 인물의 이야기다. 중국 전역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살고 있는 영희제작자 로저유덕화(유덕화)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온 아타오(엄마)한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그녀의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아타오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조금씩 깨닫아가는 것. 영화는 현실에서 물어나는 진술함을 웃음과 감동으로 절묘하게 풀어낸다는 평을 받았다. 홍콩 빅스오피스 위를 쟁취하는 것은 물론 베니스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11월 22일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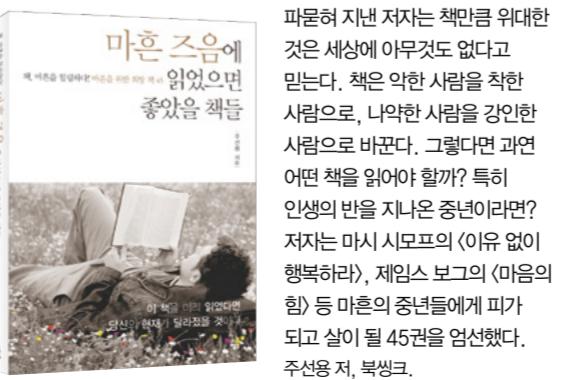


Pendant이 돌아왔다!

〈오페라의 유령〉이 7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이번 내한은 탄생 25주년을 기념한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팬텀의 오랜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오페라의 유령〉은 프랑스의 주리소설가 기스토 르루의 동명 소설을 영국의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뮤지컬로 탄생시킨 작품. 19세기 파리 오페라극장을 배경으로, 젊은 프리마돈나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충족한 얼굴의 천재음악가 팬텀의 처절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1986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한 이래 지금껏 전 세계 27개국에서 총 6만5000회 이상 공연했다. 이번 무대는 역대 최고의 팬텀으로 평가되는 배우 브래드 리틀과 웨비의 새로운 뮤즈 클리어 라이언이 채운다. 12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77-3363

Stage

Books



마흔 즈음에 읽었으면 좋았을 책들

어느 날 문득 사표를 던진 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서관에 파묻혀자연 저자는 책만큼 위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책은 약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나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바꾼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특히 인생의 반을 지나온 중년이라면? 저자는 마시 시모프의 〈유아 없이 행복하라〉, 제임스 보그의 〈마음의 힘〉 등 마흔의 중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45권을 엄선했다. 주선용 저, 북씽크.

퍼플피플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등 혁신가라 불리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 잘 듣는 모범생이 아니라 호기심을 채우는 모험생이었다는 것.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최초의 디자인 회사를 세우고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혁신가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혁신은 천재만 하는 거나? 결코 그렇지 않다. 자신이 택한 일 자체를 즐기는 것이 바로 혁신의 포인트다. 김영세 저, 교보문고.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안주는 안락사다.' 올봄 인문학자인 저자는 불안한 안주를 빅차고 47일간 산티아고 길을 걸었다. 날 선 위기감이 자신을 그 길로 내몰았다는 것. 산티아고로 떠난 한 중년 사내의 결행과 분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세 수행자들이 낡은 산발을 신고 걸었던 산타라고 길을 걸으며 치열하게 자신을 되돌아온 저자는 말한다. 위기가 끊쳤을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위로나 성찰이 아니라 그 인생무게를 끌어갈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위로나 성찰이 아니라 그 인의 힘임을, 정진총 저, 문학동네.

Cinema

시니어조선은 시니어 및 시니어를 준비하는 세대들의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조선일보의 대표 시니어 섹션으로
매월 넷째주 수요일 발행,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중심으로 배포됩니다.



시니어라이프를 준비하는 당신이 바라던 선택의 기준

2013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

2012년 12월,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 브랜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Korea Senior Brand Index)이란
시니어조선이 주최 · 주관하는 브랜드 인증 · 시상 행사로, 시니어 상품을
품질, 서비스, 안전, 이미지 등 4대 관점 5개 영역에서 소비자와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를 지수화하여
상품에 대한 시니어 및 시니어준비세대 소비자들의 브랜드 가치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은
대한민국 산업에 시니어 전문/특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시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시니어 · 시니어준비 상품군 선택의 기준이,
기업에게는 타사와의 비교우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브랜드 표준이 될 것입니다.

1위 인증기업 참여 안내
9대 산업 119개 분야의 1위 시니어브랜드가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www.senioraward.co.kr에서 지금 확인 하십시오.

문의 :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 운영사무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35 조선일보사 구관 3층 T.02-724-7865 E.senior@chosun.com